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 폐막

관람객 총 2만 2천명, 5,400만달러 수출 상담 이뤄져

미래의 첨단 주거환경을 선보이는 홈네트워크 전문 전시회인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가 6월 3일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부터 5일간 경기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된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는 총 22,000여명이 관람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 바이어 1,350여명이 방문해 5,40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이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관람객은 12.8%, 수출상담은 54.3% 늘어난 것으로, IT 강국답게 모바일과 홈네트워크를 접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국내외 참관객과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홈네트워크 산업을 이끄는 정부 3개 부처인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홈네트워크산업협회, KINTEX,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 등 4개 기관도 전시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참가업체의 전시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2006 스마트홈네트워크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코맥스, KT,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삼성물산 등 홈네트워크 분야의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등 119개사가 539부스에서 총 12,000여점의 제품을 출품, 전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세계 유일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문 전시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래형 첨단 주택을 구성할 다양한 IT 기기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볼거리와 화제를 낳았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도 우리나라 홈네트워크 산업



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하였는데 산자부는 홈네트워크 관련 8개 정책과제가 참가한 "산업자원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시연관", 그리고 정통부, 건교부도 각각의 관련 정책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제시하는 "정통부 홈네트워크 홍보관", "건교부 홈네트워크 홍보관"을 대규모로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우리 나라 홈네트워크 산업의 조기 활성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다.

부대 행사 또한 풍성했는데 중국 유력 건설업체 및 도시개발 CEO 초청 무역 상담회는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건설시장에 우리나라 홈네트워크제품과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시아 유력 전자 IT메이커 초청 수출상담회, 스마트홈 산업포럼, 아시아홈네트워크 협의회 발족식 및 세미나 등도 전시회 참가업체와 홈네트워크 관련기업에 많은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6스마트홈네트워크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진흥회 박순길 차장은 "금년도 전시회는 미래 첨단 주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홈네트워크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촉진, 수출증대와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Bio-IT파운드리 기업활용 활발

출범이후 2년 만에 서비스 지원 1,000건 달성 - 광주센터

본회는 미래 유망기술로 꼽히는 Bio-IT 융합기술을 지역 및 범국가적으로 생산 설비가 필요한 BIT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신생벤처, BIT융합 기술도입을 통해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기술 지원, 준 양산 장비 대여 및 주요 생산제품의 수탁/파운드리 생산 등의 지원업무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의 조기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제(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Bio-IT파운드리 공동 생산시설 3개 권역(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 센터별로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으로는 서울



센터에서는 BIT 핵심소자(Lab-on-a-chip) 설계 및 제작가공 기술, 부산센터는BIT 진단칩용 바이오물질 제조설비 구축, 광주센터는 초소형 휴대용 분석 진단기기 개발, 제조기술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여 '04.7월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지원활동을 해왔다.

국내방송기기 유럽시장서 호응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선보인 방송기기들이 유럽 전문전시회에서 호응을 받았다.

본회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방송장비 전문전시회 '쾰른 케이블방송장비전 (Anga Cable 2006)'에 한국공동관을 최초로 구성해 4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고를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6월 1일 발표했다.

'쾰른 안가 케이블' 전시전은 디지털 셋톱박스 등 방송기기 및 서비스 관련 전문전시회로, 우리나라는 한국관에 참가한 기업 외에도 휴맥스, 삼성전자, 홈캐스

트, 가온미디어, 토필드 등이 참가했다.

쾰른 전시전에 한국이 공동관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열림기술, 글로벌텔레콤, 위닉스, 제원물산, 텔레만전자통신, 디지웍스, 인택디지털 등 총 7개사가 공동관에 참가했다.

공동관에 참여한 업체들은 하드디스크 내장형 PVR, 인터넷이 가능한 양방향 셋톱박스, 그리고 2개의 튜너를 내장해 방송 2개를 동시 시청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선보여 3천800만달러의 상담액, 450만달러의 계약고를 올렸다.

전자산업 분야 러시아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본회는 산업자원부와 KOTRA의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을 받아 전자산업 분야의 러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모스크바 등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 파견기간: 2006년 9월 17일(일)~23일(토)
- ▶ 상담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피테르스버그 2개 지역

- ▶ 참가대상: 정보통신기기, 가전, 보안기기, 의료기기, 전자부품 등
- ▶ 접수 및 문의처: 산업총괄팀 장석준 과장
 - 전화: 02-553-0941(내선 234)
 - Fax : 02-508-4199
 - e-Mail: sijang@gokea.org

전자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전자산업동향예보제 개최

산업자원부는 6월 2일 전자부품연구원 대강당에서 400여 명의 전자산업 관계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7회 전자산업동향예보제 세미나를 개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이끌어 갈 유망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과 전자산업진흥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유망기기 및 부품에 대한 최근 기술 및 시장동향과 발전전망을 제시, 향후 사업계획 및 투자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산업동향예보제 세미나는 유망 전자기기 및 부품에 대한 산업 및 기술 동향, 업체 동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기획성 프로젝트로, 발표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전자부품연구원이 운영



하는 전자정보센터(EIC) 홈페이지(www.eic.re.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06 회원명부』 게재용 원고작성 및 광고게재

본회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회원사간 정보공유를 위해 『2006 회원명부』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 간행물에 게재할 회원사의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회원의 자료는 국, 영문판으로 각각 제작되어 국내 및 해외공관에 배포되는 물론,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사 정보DB를 통해 on-line에서도 널리 소개될 것이다.

회원사 현황자료 게재는 무료이며, 원고양식 및 HSK CODE는 본회 홈페이지(www.gokea.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 간행물을 통해 보다 높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회원사(또는 관련업체, 기관)에서는 붙임의 광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KEA 전자산업정보망 원고 모집

KEA 전자산업정보망에서는 『전자산업정보』의 「전문가분석자료 및 품목별 동향」에 들어갈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다.

1.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저작권 검증을 위해 소속이 있는 저작자의 원고만 접수)
2. 저작자가 직접 작성된 원고 (타 기술자료 번역 혹은 전문 복사는 안 되며 부분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해야 함)
3. 시장 및 기술 최신동향 위주의 내용(기술개론위주의 원고는 배제)

- 주제 : 전자산업 분야의 시장동향 및 기술 동향 분석 자료
- 1회 A4기준 15쪽 이상 (아래아 한글 기준 - 폰트: 굴림체, 폰트크기: 11, 상하여백: 20mm, 좌우 여백: 20mm, 줄간격: 160%)
- 원고료 : 1회 300,000원
- 저작권 : KEA

☎ 문의처: 산업정보화팀 대리 변현주
julie@gokea.org(02-553-0941(433))